

국책사업 발굴로 신성장산업 총력 대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가상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집중

전주시 출원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이 인공지능(AI)부터 가상융합, 버추얼 프로덕션에 이르는 지역 신성장산업을 이끌어갈 선도기관으로서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진흥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에 발맞춰 그간 준비해왔던 인공지능 관련 국책사업들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손잡고 오는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사업에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운영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진흥원은 향후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가 전주에 구축되면 지역 내 AI 개발기업이나 AI도입 산업 분야에 걸쳐 AI의 도입·적용시 △위험도·안전성 분석 △컨설팅 △검증·인증 등을 지원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또 인공지능 신뢰성 허브센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력양성부터 전문가 교육, 표준 대응반 운영 등 지역 내 인공지능 산업과 그에 기반한 산업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품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최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AI 활용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진흥원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전북VR·AR제작자집진

터를 지난해 ‘전북메타버스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적극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을 연달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메타버스 지원센터 △메타버스 허브센터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모두 수행하며 가상융합사업화 지원에서부터 인력양성까지 지역 기업의 가상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디지털 기술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VP)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버추얼 프로덕션, 우리가 아는 영화와 콘텐츠 속에서 찾아보기’를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영화 및 OTT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국내 우수 기업의 연사가 초청돼 이론부터 실제 활용 사례까지 폭넓게 소개하기도 했다.

시연회에서는 사전시각화 단계인 △버추얼 스카우팅 △로션 캡처 △버추얼 카메라 샷 설계 등 영화제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들이 선보였다.

여기에 진흥원은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사운드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충 △파도 △사울의 불 등 천만 영화와 OTT드라마 △오징어게임2 등의 사운드 작업에 참여한 국내 대표 음향 전문 기업인 라이브 톤의 최태영 대표를 초청해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영특한 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진흥원은 지난 25년간 지역 내 신성장산업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이끌어왔다”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가상융합 등 신성장 기술과 지역산업이 잘 융합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화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이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맞춰 하계기간(6월~8월) 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돼 온 연화정도서관이 오는 6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 결정은 해마다 6월부터 8월까지 덕진공원 연못에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발맞춰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은 한옥 도서관인 연화정도서관은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도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름철 야간 개방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야간에도 책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여름철 야간 개방

6월 4일~8월 29일 평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연화정도서관의 하계 야간 연장 운영은 연꽃이 만개한 덕진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전통 한옥의 멋을 간직한 도서관을 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연화정도서관에서 여름밤의 여유와 문화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화정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연장 운영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전주시는 28일 전주 제1산단 내 제지업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전주시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일 휴비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현장 중심형 예방 교육이다.

교육에는 전주페이퍼 경영층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현장 사고 사례와 분석 △현장 안전관리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교육을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신상대 부장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6월 중에는 세플코리아와 효성첨단소재 등 주요 제조기업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10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을 위한 ‘집합 안전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교육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진짜 예방이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유흥주점 등 158개 업소 일제조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 27일 관내 유흥주점 등 158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나이트클럽과 같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

상인 룸살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중과세율(4%)이 적용되어 7월에 건축물 분, 9월에 토지분이 부과된다.

덕진구청 세부과는 유흥주점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 직원 8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반은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영업 여부 및 유흥접객원 여부 등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우범기 시장·직원들, 농가 작업 돕고 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영농철을 맞아 과수농가를 찾아 일손을 거들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직원들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과수농가를 찾아 일손을 거들었다.

전주시는 2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진구 장동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영농철,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 돕기 활동은 약 6600㎡(2000평) 규모의 배 과수원에서 진행됐으며, 우범기 시장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배 봉지채우기 작업을 도왔다.

특히 우 시장은 이날 일손 돕기 이

후에는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배 재배 △인력난

등) 총 4개 분야, 12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뤄졌으며, 전문강사진을 초빙한 외부 강의와 전주시 주요부서 팀장의 실무지식 전달 강의로 구성됐다.

신규공무원들은 교육 시작에 앞서 레크리에이션 강의를 통해 친밀감을 높였으며, ‘일링&쉼’ 이로마 향수 만들기 과정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관리 과정 등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 및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전주시 공감소통 멘토링 프로그램인 ‘갈뿔’을 활용해 교육생 개인별로 멘토링 팀을 결연시켜 선배와의 소통시간도 마련됐다.

선배공무원들은 신규공무원과의 눈높이 소통을 통해 공직에 쉽게 적응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관계 지속을 목표로 친목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새내기 공무원 적응·역량 강화 지원

전주시가 공직 생활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적응과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주시자립봉사센터 이웃사촌방에서 2025년 신규 임용후보자 16명을 대상으로 ‘신규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에 신규공무원들의 올바른 공직 자세 확립과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 자체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공직 가치 △직무 △소양 △기타(현장학습, 멘토링활동

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에 신규공무원들의 올바른 공직 자세 확립과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 자체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공직 가치 △직무 △소양 △기타(현장학습, 멘토링활동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성'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